

# 192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이건희\* · 양취경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복식의 한 부분으로서 메이크업(make up)은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중요한 요소이며, 패션은 특정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문화의 일부로써 그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예술은 일관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시대적 상황이 비슷한 각기 다른 시대에 유사한 패션을 찾아볼 수 있다. 뉴 밀레니움(new millennium)을 맞으면서 패션은 새로운 세기를 맞는 희망과 불안으로 지난 세기에 대한 회귀와 동경의 복고적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9·11테러로 인하여 전쟁의 분위기와 세계대전 발발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혼돈을 겪었던 1920년대와 1960년대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1920년대와 1960년대 메이크업적 유사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메이크업 분야와 더 나아가 패션 분야에 참고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2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시대의 사진자료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같은 형태의 메이크업 패턴에 특징적인 시대 메이크업을 실시하여 비교함으로써 두 시대의 메이크업의 유사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920년대는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이 우세한 시기였다. 모더니즘의 개념은 문화적 전통의 거부와 새로운 것의 창조를 나타내며, 1920년대의 패션에서도 이러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패션경향이 나타났다. 1920년대는 춤의 재즈 시대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여성들이 사무실과 공장으로 진출하였다. 사무직 여성의 고용은 젊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이 시대에는 자유로운 말괄량이 스타일인 플래퍼(flapper) 스타일 의상으로 인해 하얀 얼굴위에 어린아이처럼 커다란 눈과 작고 귀여운 입술모양으로 표현되는 베이비 룩(Baby Look)의 화장 형태가 생겨났다. 또한 여성해방운동과 자유연애 사상 등 활동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의 확립으로 여성 메이크업의 색조와 스타일이 대담해지면서 얼굴에 파우더를 바르고 눈가에 검정색의 라인을 그렸으며 눈꺼풀에도 검정색을 주었다. 1925년 여성들은 햇볕에 그을린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에 매력을 느끼면서 우유 빛 같은 흰 피부와 핑크색 볼을 원하지 않았고 햇볕에 그을린 자연스런 피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영화산업의 발달로 일반대중들은 영화스타의 화장형태를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클라라 보우(Clara Bow),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 루이

\* Corresponding Author: fashion2kr@yahoo.co.kr

스 브룩(Louise Brooks), 폴라네그리(Pola Negri) 등의 메이크업이 일반 대중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간의 관계는 쿠바 위기 등으로 냉전이 심화되었고, 베트남 전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가져와 청년시대의 반전운동으로 신 좌파와 히피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중류계층의 가치관과 규정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반항으로 1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은 성별을 정의하는 표시를 희미하게 하는 미의 양성적인 이상에서 그들 자신을 재발견하였다. 때문에 1960년대는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였으며 영 패션(Young Fashion)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는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1920년대를 지배하였던 샤넬의 수트나 플라퍼 스타일, 또는 가르손느 스타일 등이 다시 유행하였으며 모델 트위기(Twiggy)의 등장으로 어린 소년 같은 모습이 이상형이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트위기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따랐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약간 핑크색이 들어 있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 톤을 표현하고 눈썹을 두껍게 그리거나 아예 밀어버렸다. 눈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매를 강조하거나 문신을 하였고 아이홀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인조속눈썹을 위아래로 붙였다. 볼터치는 핑크색이 도는 색으로 얼굴 앞쪽을 중심으로 그려서 전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인상으로 표현하였고 입술선을 강조하는 대신에 입술색은 연한 색상을 사용하여 내추럴한 이미지를 살려주었고 핑크펄 립스틱을 사용하여 생기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920년대와 1960년대 메이크업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 1920년대와 1960년대는 젊은 계층이 사회의 가치관에 변화를 꾀하였고, 1·2차 세계대전은 그러한 변화에 획을 그어주었던 시기로 다른 시대에 비해 젊은 문화가 추종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로 영화산업이 성행하고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쳤던 시대이다. 따라서 두 시대에는 영화배우의 스타일이나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 남성화 경향: 1920년대에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보다 유사해지면서 여성들은 소년의 이미지를 이상으로 삼는 보이쉬 스타일·가르손느 스타일 등을 선호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출산을 위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1920년대와 같은 소년의 이미지를 여성들은 원하게 되었다. 두 시대에는 짧은 헤어스타일과 아기 같은 피부표현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3) 단순화 경향: 젊은 계층에 의하여 이루어진 1920년대와 1960년대 문화는 기능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변하였고 이러한 경향의 보상으로 눈매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는 눈가에 검정색 라인을 그리고 눈가에 검정색 음영을 주었으며, 1960년대에는 인조속눈썹을 사용하여 눈매를 더욱 강조하고 눈가에 아이라인이나 문신을 사용하여 눈매를 더욱 강조하였다.